



'제2회 미주 목회자·선교사 자녀 컨퍼런스'가 21일부터 24일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다민족기도대회 평가회가 옐렌카운티 한 식당에서 열렸다.

다민족기도대회 평가회 열려

“내년에 더 주인의식 갖고 참여하자”

2018년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Multi Ethnic Prayer Gathering)가 지난 10월 말에 은혜한인교회에서 “Heal Our Land(이 땅을 고쳐주소서)”를 주제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보고회 및 평가회가 15일 오전에 옐렌카운티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보고회에서 연합 기도대회 총 수입은 후원교회, 광고 후원 및 대회 헌금 등으로부터 총 3만 4295불 6센트, 총지출은 준비 모임, 광고, 프로그램 제작 등 총 3만 1227불 73센트였으며, 총 잔액은 3067불 33센트로 주최측은 보고했다.

이번 기도대회에 대한 집행부 평가에 따르면, “한인들이 미국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갖고 해마다 미국을 위해 다민족기도대회를 조직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과 이번 중간선거에 좋은 선거 결과(바람직한 균형)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한인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대회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 후원교회들, 광고 후원 단체들에게 감사 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교회 행사들이 겹치고 월드스리지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고, 국가적 위기상황이 아닌 점도 있었지만 참여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해에는 연초에 기도

하는 중대형교회들의 공동 주인의식과 적극 참여를 다짐받고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남가주 여러 지역의 교협, 목사회 등 주요 기독교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대회 중에 시간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점을 밝혔다. 기도대회를 인도한 참석자들이 소감을 밝힌 가운데, 조은교회 김우준 목사는 “다민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다”면서도, “전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참석했다가도 도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월드쉐어 강태광 목사는 “전체적으로 아주 은혜로운 집회였다. 내년의 모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가 있다면, 시간 준수를 통해 전체 시간을 줄이는 것과, 새로운 패턴의 기도회로 변화를 꾀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침반교회 민경엽 목사는 “8년간 계속 해온 모임이어서인지, 사탄의 방해 때문인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무기력감이 있었다. 하지만 집회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더해질수록 영적인 충만함이 느껴졌고, 주께서 참석하신 분들을 만져주시기를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다른 때보다 외국인 형제자매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집회였다”고 밝혔다.

“목회자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것 과감하게 끊으세요”

‘제2회 미주 목회자·선교사 자녀 컨퍼런스’ 열려

‘제2회 미주 목회자·선교사 자녀 컨퍼런스’가 추수감사절 연휴인 21일부터 24일 파사데나에 위치한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목회자자녀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 주최로 열린 가운데, 주최 측은 컨퍼런스 취지로 “이민사회의 언어와 인종, 문화적인 차이가 한 인교회 목회자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예배에서 열왕기하 1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설동욱 목사는 “부흥회와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는데, 사람들의 좋은 모습은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려고 하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면서, “주의 종의 자녀들은 다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부모님이 주의 종인

데,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설 목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버리게 하신다. 그러면 아픔이 있다”라면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의지하면 울무에 걸리게 된다. 특별히 목회자는 그렇고, 목회자의 자녀도 그렇다. 사람은 환경과 조건, 날씨에 따라 변한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주시

고, 미주 목회자 자녀세미나도 부족한 가운데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 주신다. 안방에서 시작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사로 섬기게 하시고, 존중 받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라며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해주시길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설교를 마친 후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은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오전 시간을 마무리했다.

2회째 미주에서 열린 목회자·선교사 자녀 컨퍼런스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행사는 31회까지 진행되었다.

토마스 멩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한국 헤민병원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마감일 12월 15일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80**

\$100 쿠폰구입
 \$28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검진센터 **이성수** 소장

자세한 내용은 **213.465.6529** 로 문의해 주세요.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상담적 대화의 기술

주일 날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제가 고민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하고 약간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요, 이웃인 다른 성도의 이 요청에 금세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이 고민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리잡힌다. 그러나 어떻게 지혜 있게 말해야 할지 아리송하다. 성경 말씀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나의 말과 접목하고 싶지만 바로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상담은 언어에 민감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단순히 잘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보라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상담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상담의 도구 혹은 기술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까? 상담자의 자세, 적극적인 경청, 진실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자세와 배려, 등이 떠올라야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자세와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이야기들을 선입견 없이 들어려고 하는 노력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모두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제각각이어서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와는 ‘틀리다’라는 마음보다는 ‘다르다’에 집중하여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에 그 사람의 유일성을 고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존중하며 침범하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같은 청취자가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으나 쉽게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속도 보다는 방향을 파악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배려의 자세

이다. 혹여 상대방의 이야기가 과장되고 포장이 된 것이어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진실하게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면위로 떠오른 말의 이면에는 어떤 감정과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진실성을 가지고 들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담의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에는 이렇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 더 상담의 기술이 분명해질 수 있다. 그분은 최고의 상담가였고 군더더기가 없으셨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보여 준 상대방에 대한 진실성, 배려와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밑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결국 변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담 기술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상호작용을 이루며 관계를 맺는 사회 구조 속에 상담의 기술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훈련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스스로가 격려하고 응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나성한미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2018 Love El Monte’ 개최

20명 선정해 장학금 전달



나성한미교회가 추수감사절 행사로 ‘2018 Love El Monte Festival’을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했다.

나성한미교회가 27년째 이어오는 추수감사절 행사로 불우한 이웃과 어린 자녀들을 위한 ‘2018 Love El Monte Festival’을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했다.

이날 나성한미교회는 스페니시 자매교회인 ‘Agua Viva Church’와 함께 이웃 300여명을 초청해 점심과 자녀들을 위한 게임과 선물 등을 제공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온가족이 먹을수 있도록 닭고기를 선물했다.신용환 담임 목사는 “가

스펠 가수를 초청해 이웃들과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 치킨 140마리를 준비해서 선물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2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나성한미교회는 설립된 지 35년이 됐으며, 지난 1987년 5월에 엘몬테시(City of El Monte)에 교회를 세웠다.

사우스베이목사회, 신임회장에 이상훈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정기총회를 12일 가나교회에서 개최했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2018년 정기총회를 12일(월) 오후 6시 30분 가나교회(안병권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가 당선됐다. 목사회는 앞으로 회원 상호간 협력하면서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에 협력을 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제1부 예배는 찬양을 부

른 후에 김관중 목사의 대표 기도로 2018 총회가 시작 되었고, 이어서 안병권 목사(전 회장)가 설교했다. 안 목사는 사사기 7장 9절-12절을 본문으로 ‘함께 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 목사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로, 공동체 안에서 상호 협조하면서 사역에 열정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자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동판 제막식

오는 12월 1일(토) 오전 11시에 최초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1871-1958) 기념 동판 제막식 행사가 풀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패서디나 지역의 공용요지 마운틴 뷰 묘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구약성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한국명 ‘피

터스’)는 1871년 러시아의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의 정치적으로 암울한 상황과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박해를 피해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단했다. 러시아를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으로 거듭나 한국 땅을 밟게 됐다. 그는 미국

서서공회가 파송한 권서(Colporteur)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와서, 최초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1895년 한국에 와서 3년간 한국말을 배운 후 1898년 시편의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시편할요’를 출간했다. 이것이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이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오바마 케어 벌금면제

‘건강 헬스케어비가 매달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땡큐! 크리스천 헬스케어

- 전 미주 45만명의 가입자들이 신뢰하는 35년 전통의 최대 의료조합
- 오바마케어 / 보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 2017년 의료비 혜택 총액이 무려 2억5천7백만 달러
- 골드+브라더스키퍼 회원에게 무제한 의료비 지원
- 세계 어느나라의 병원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 도표>

프로그램	1인당	가족당	개인부담	최고 지불액	브라더스키퍼	혜택범위
골드	\$150	\$450	\$500/건당	\$125천	무제한	의사방문, 검사, 약, 수술, 입원
실버	\$85	\$255	\$1천/건당	\$125천	\$10만 증액/매해	수술, 입원
브론즈	\$45	\$135	\$5천/건당	\$125천	\$10만 증액/매해	수술, 입원

크리스천 헬스케어 한국어 지원국 | 디렉터 티나 정 714-738-1234 • WWW.CHMAN.ORG
 251 East Imperial Blvd, Suite 410, Fullerton, CA 92385

남가주목사회 52차 정기총회서 김관진 신임회장 인준



남가주목사회가 제 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관진 목사를 인준했다.

남가주목사회가 제 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관진 목사를 인준했다.

19일 오전 10시에 오직예수선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부회장 김관진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인준 받았다. 남가주목사회는 수석부회장이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차기 회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관진 목사는 “지난 51년 동안 헌신하신 전직 회장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저는 회장이 될 자격이 못되지만, 회원들이 회장으로

세워주어서 수락하게 되었다”며 “부족한 중을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목사회 회칙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출마 자격으로 기존의 ‘담임 목회를 하는 자’에서, 공인된 교단에서 파송되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 및 공회지역 기관의 장 또는 기독교 공공기관 대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해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

끌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 13:22)이란 제목으로 1부 예배에서 설교한 김재중 목사는 “교회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 앞 에 늘 기도해야 한다. 다윗은 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자가 되었다”라며 “남가주목사회가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1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에 따르면 수입 총액은 4만 9830불 46센트, 지출 총액 4만 9802불 55센트, 이월금은 27불 91센트로 보고됐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거행



2018년 남가주밀알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남가주밀알선교단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여해 온 고등학생들에게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여했다.

11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길교회에서 열린 ‘2018년 남가주밀알 대통령봉사상 시상식’에서는 금상 54명, 은상 27명, 동상 24명을 비롯해 새린 쿼크-실바 거주하원의원상 7명 등 총 112명이

상장을 받았다. 2000년 8월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발달장애인들의 재할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2개 지소에서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Irvine, Torrance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다.

새언약학교 올해도 특별한 추수감사예배 드려



새언약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이 함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새언약초중고등학교(NCA)가 올해도 특별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16일 학교 강당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페스티벌에는 350여 명의 재학생과 학부모, 친지들이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킨더부터 12학년 전학생이 800불(목표 2000불)을 모금해 허리케인 마이클과 Woolsey Fire로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도우며, 더불어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단체인 Los Angeles Regional Food Bank를 통해서 3820개의 캔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페스티벌은 제임스 송 교장의 메시지 이후 4학년부터 12학년의 핸드벨 공연, 킨더-3학년의 퍼포먼스, 찬양, NCA 치어팀의 바디워십,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후에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창대교회, 추수감사절 맞아 홈리스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나눠

120인분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홈리스들에게 나눠



창대교회 전교인이 노숙자 섬김에 함께 했다.

센 버너디노에 위치한 창대교회(이준준 목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17일 전교인이 함께 120인분의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홈리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창대교회 한 교인은 “2018년 한해를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는 그동안 센 버너디노 지역의 영적 구원 외에도 노숙자 사역 등 다양한 섬김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다.

월드미션대학 상담세미나 ‘트라우마와 상담적 접근’

ATS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는 ‘트라우마와 상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상담세미나를 개최한다.

탈북 신학교 교수인 Sunny Song

임상심리학 박사가 초청강사로 서 이번 세미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월드미션대학교 오렌지카운티 캠퍼스에서 열리며 목회자, 사역자, 일반인 등 상담에 관심있는 분

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상담심리학 전공 문이나 이번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213) 388-1000 혹은 admissions@wmu.edu 로 하면 된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리길 다 돌아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롤업배너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여인교회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절감사예배 2018.04.01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오렌지 성서교회 유치부 & 유년부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0>

홈리스 형제들과 함께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

지난 17일 필자가 이사로 섬기는 '울타리선교회'에서는 홈리스 형제들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다른 어느 때의 예배보다도 우리 한인 교회들과 예배 찬양순서를 맡아 연주해 준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등으로 인해 많은 수가 참여한 예배였다. 모두 기쁜 모습들이었고, 예배도 은혜롭게 드러졌다. 필자는 예배 중에 선교회 대표인 나주옥 목사의 영어 설교를 들으면서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생각했다. 나 목사는 감사 중에 한 달 전까지 웨스턴 42가의 한 골목길에서 홈리스들과 거리 예배를 수년간 드렸었다. 근처의 한 교회가 예배시간에 예배당 사용을 허락했었는데 어찌 된 연유인지 어느 날 교회 문을 닫고 홈리스들의 출입을 막았다.

할 수 없이 모여 드는 40-50여명의 홈리스 예배자들과 근처 거리에서 예배를 이어 갔던 것이다. 그 이후로 교회 문을 열어 주는 곳이 없어 거리 예배를 드리다가 한달 전 지금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구세군 교회인데 그 담임목사님이 울타리선교회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교회 운영위원들과 상의하여 그들의 예배당을 오픈 해 주었다. 할렐루야! 나 목사가 드린 감사의 제목 중에 홈리스로 살지만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 감사, 울겨울 추위 피해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당 허락해 주신 것 감사, 힘들게 살면서 우리 교인들 선하게 살게 해 주심을 감사, 설교 중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서 필자의 눈에선 계속 눈물이 흘렀다.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라 생각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 이맘 때 다녀왔던 터키 안디옥에서의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 수양회에 감사로 참석했던 시간이 기억났다. 부모 형제를 잃고 자기 재산도 잃고 전쟁을 피해 난민으로 온 그들이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감사라 했다. 그리고 난민 자격을 허락 받아 이제 곧 캐나다나 독일 등 다른 나라로 들어 갈 자격을 갖추었는데 자신들은 기다렸다가 다시 시리아로 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제 살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리아 자기 민족에게 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예수님 때문에 시리아 민족은 "The Great Nation"이 될 것이라 했다. 그렇게 감사 드렸던 시리아 난민 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들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 홈리스형제들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살면서 그들보다도 감사의 제목을 더 못 찾아내고 사는 영적인 홈리스들이 있다. 저 시리아 난민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삶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유한 환경에서도 찾지 못하는 감사, 아니 부유한 것만 감사로 여기는 이기적 감사들... 그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박국의 말씀이 다시 온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속에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하박국3:17-18)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진정한 행복의 세 기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교(Protestant)와 구교(Catholic)로부터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의미 있는 저작물인 행복론이 최근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는 참 행복을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본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행복론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한 소식을 전합니다. 행복을 누리게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행복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행복한 소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행복론을 자세히 살펴본 대린 막마흔은 자신의 책 '행복의 역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 행복을 세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행복은 실존적, 이성적, 그리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실존적이어야 합니다. 철학에서 '실존'은 자아인식과 경험의 구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용어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말하는 실존적 행복은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복입니다.

당시의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아우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해되고 인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래서 누리는 행복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적 체험과 성도의 행복은 논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행복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의 범위를 절묘하게 조절합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행복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또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누리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을 섬기며 누리는 행복이 상함도 쇠함도 없는 참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행복 추구는 파괴적입니다. 에덴동산의 인류 조상들은 행복을 오해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들은 잘못된 행복 추구로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행복추구는 자연스럽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행복 추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티누스의 제안은 상당히 과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쟁론을 좋아하고 사변적 신학체계를 세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과 섬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바른 행복은 개개인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가하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체험적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 상충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은 신앙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성은 신앙에 대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원래 이성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과 영적 경험도 이성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앙과 신앙의 경험을 신비의 세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성으로

인도 정부, 노스센티넬 섬 접근 중 사망한 선교사 시신 수습 포기

인도 정부가 노스센티넬 섬(North Sentinel Island)의 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접근하다 공격을 받고 사망한 존 알렌 차우(John Allen Chau)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중단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 부족 복지, 숲, 인류학부의 관계자들은 회의 끝에 고립된 섬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BBC를 인용해 보도했다.

노스센티넬 섬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로 현지 원주민들은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지내왔다. 특히 이곳은 질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섬 상륙을 막기 위해 해안경비대가 섬을 순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서



존 알렌 차우 선교사의 모습.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요청 이후에 내려졌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의 스테판 코리(Stephen Corry) 대표는 "인도 관계자 뿐 아니라 센티넬 섬의 부족들에게는 어떤 시도도 위험하다. 만약 외부 질병이 투입된다면, 이들은 소멸될 수 있다"

고 전했다. 그는 "차우 씨의 시신은 그곳에 남겨져야 한다. 센티넬 부족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최근 섬 방문에 대한 규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섬 주변의 출입금지 구역도 적절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신앙정절과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18-2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계시록 2:18-29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도되 그 응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서 동북쪽으로 180리 정도 가면 두아디라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지금도 옛날처럼 구리를 많이 캐내어 여러 가지 생활 기구를 만들어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기도합니다. 그 시대에는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무역으로 산업과 상업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14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친정 교향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지금의 불가리아인 항구도시가 빌립보인데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가서 물들인 옷감을 구해 행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공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세계 선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

정인 두아디라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불꽃같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만든 것인데 예수님도 세상을 사시는 동안 엄청난 환란과 핍박,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까지 엄청난 연단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33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신 일이 없고 어떤 행패와 고통을 당하셔도 다 이겨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사업을 그 서두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랑을,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내세소망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육신이 세상사는 날 돈 더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첫째 목적이었다는 것과 이들의 사랑은 진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사업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일로 구리로 생활 용품을 만드는 것과 옷감을 물들이 파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진리 정통한 교리적 신앙이 바르서지 못했습니다.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우선이었고 섬김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면과 명분을 앞세운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통한 신앙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로 인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은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교회의 지도급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도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입각하여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믿음의 정절과 쫓대를 지켜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9:6-37 사이에 이세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바알(풍요의 신)과 아세라(다산의 신)라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궁 안에 신상을 놓고는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숫자는 늘어갔고 하나님의 벌로 긴 가뭄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기도응

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에 이세벨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아합 왕 때의 이세벨이 했던 역할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이단을 끌고 들어와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이 이단을 추종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과 이 여자와 육체적으로 음행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자들처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침상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의 씨도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지을 짐이 없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이겨냈기 때문에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덧붙일 말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에 따라 맡겨진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만

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뿐 아니라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8절의 ‘새벽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와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를 감싸주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회개의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이 기대하실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져서 받은 은혜가 감응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 분위기를 힘쓰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에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진리 정통한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교리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그들도 모르게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아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리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 믿어지는 믿음이 확실한 바탕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사는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교회의 올바른 성장 모습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기쁜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2018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성탄찬양제

Dec. 2nd(Sun), 2018 5:00PM(리허설 3:30PM)

할렐루야한인교회 본당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el. 909-595-3110(Office)

성탄의 기쁨으로 동부지역 교회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 동부교협총무/나성한미교회 신용환 목사 714-315-4455 또는 할렐루야한인교회 교역자실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허리통증 해결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여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목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르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극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져,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중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미션아가페 추수감사절 사랑나눔 모습

미션아가페, 추수감사절 맞아 3천여명에 사랑나눔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이 지난 22일 조지아월드드레스센터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노숙자와 불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호세아 헬프와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3천여명의 이웃들이 초청됐으며 독거 노인인과 이웃들에게 3천개의 도시락 또한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애플렌다 시장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참여

해 사랑을 나눴다. 한인사회에서는 김의석 전 한인회장 가족을 비롯해 63명의 봉사자들, 지-사운드 색소폰 그룹 25명이 함께 했다. 미션아가페는 행사를 위해 21일 5천파운드의 닭을 요리했으며 호세아 헬프에서는 터키 1만3천 파운드와 아채 등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했다

앤더슨 김 기자

박성근 목사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과 해답 오직 여호와께 있어”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러브타코마 이웃초청 부흥회 성황



2018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러브타코마 이웃초청 부흥회에서 설교하는 박성근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를 감사로 러브타코마 이웃초청 부흥회”를 개최했다. 박성근 목사는 어두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인생의 소망과 해답을 발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것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우리 인생은 누구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발견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라고 말했다.

“비록 세상이 어둡고 모든 희망의 불이 꺼져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섬리와 우리를 향한 계획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 수록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도들에게 거룩을 주문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구별된 곳에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어둠을 떠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

성을 듣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면 그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이어 바른 순종과 헌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참된 순종과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환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또 교회의 리더들이 맡겨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구약시대에도 세상이 어두워지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에서 떨어져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서 꺼지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근 목사는 “43주년을 맞이한 타코마 제일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지내 온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한다”며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성장하며 시련을 이겨낸 나무와 같이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의 뿌리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수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폴 원 기자

조지아주 침례교회, 이혁기 회장-김영진 부회장 선출

조지아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이하 침례교협) 신임회장으로 아틀란타 한마음침례교회 이혁기 목사가 선출됐다. 지난 11월 11일(주일) 뉴피플교회(공동담임 이덕재 목사, 도기용 목사)에서 제 29차 정기총회를 가진 침례교협은 22개 교회 3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부회장에는 발도스타한인침례교회 김영진 목사, 총무로는 선한목자교회 김성

철 목사가 선출됐으며 서기로는 애틀랜타 뉴에덴침례교회 이재우 목사, 회계로는 메이콘한인침례교회 전단열 목사가 임명됐다. 이혁기 신임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침례교의 중요 자산인 자유와 협동정신이 잘 조화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앤더슨 김 기자



<p>LA 지역</p> <p>주일에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속박을 방지</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p>	<p>주일에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00</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비폴중학교(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이만2세부터 유아까지,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p> <p>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일예배 오후 11:00</p> <p>최순환 담임목사</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양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왕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e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지용덕 담임목사</p> <p>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p>
<p>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일찬양(배백)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p> <p>김경철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후 12:15</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광성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p> <p>곽건섭 담임목사</p> <p>예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박은종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9:3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오전 5:30 리셋에덴(월)예배(소액)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믿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p> <p>김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전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 사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함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함글교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8:00(금)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 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화-토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北 억류 선교사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유기성 목사, SNS 통해 공유하며 ‘긴급 요청’



해당 청원 화면. ©청와대 홈페이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긴급 요청’을 전했다.

유 목사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2016년 2월부터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왔다. 2017년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가, 2018년 미국 국적의 김동철 목사 등이 석방되는 큰 기쁨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2013년, 2014년부터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들이 풀려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기성 목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연합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준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풀려

나도록 청원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번 청원에는 동참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목사는 “추위치는 날씨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분들을 위해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고 꼭!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우리의 연합을 통해 주님이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온 땅이 알게 하실 줄 믿고 계속 중보하겠다. 주위 분들에게도 꼭 전달하시어 동참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청원 게시1주일여가 지난 11월 29일 현재 14,040여명밖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대웅 기자

장신대서 동시에 열린 ‘상반된’ 동성애 강연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로스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에서 동성애와 관련해 전혀 상반된 내용의 두 강연이 동시에 진행돼 학교 안팎에서 관심을 끌었다.

먼저 이 학교 동아리인 파로스포럼이 22일 저녁 7시, 교내 소양관 204호에서 이정훈 교수(울산대)를 강사로 초청해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회교육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교수는 과거 서구를 중심으로 기독교 가치와 윤리에 반하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근대적 개념의 자유와 인권은 기독교, 특히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이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한 서구 사회는 법치를 확립하면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이데올로리는 ‘동성애’를 무기로 이른바 ‘성해방’을 부르짖었다. 급기야 관련 법을 제정하는데까지 이른다. 그러면 서 서구의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와 같은 시간 소양관 510호에서 대략 3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총학생회가 ‘인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강사는 김지학 소장(한국다양성연구소). 그는 이날 강연에서 “미국에서 유학하며 처음으로 무슬림과 성소수자를 만났다”며 “(이들에 대해) 혐오에 기반한 생각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했다. 특히 그는 “소수자들을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퀴어축제도 사진만 보면 ‘음란 대잔치구나’ 할 것이다. (그렇게) 걸만 보면 내면화 되어 믿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강화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난민과 이슬람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이 같은 강연 진행에 대해 “총회(예장 통합) 입장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통합 측은 지난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 장신대를 포함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할 수 없도록 결의했다. 아울러 올해 제103회 총회에선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행위자나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의 목회자상에 어긋나기에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김진영 기자

기하성 여의도-서대문 통합 “5천 교회 180만 성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 측(총회장 이영훈 목사)과 서대문 측(총회장 정동균 목사)이 2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교단 통합’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분열 후 약 10년 만이다.

우선 양측 합의에 따라 임원을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총회장 이태근·정동균 목사로 정했다. 이들은 내년 제68차 5월 총회에서 인준되며, 임기는 이후 2년이다. 임기가 끝나도 총회에 재신임을

물 수 있다. 또 각 교단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으며, 행정과 재정도 병합하는 데 합의했다. 이 밖에 학교법인 순복음교회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교단 통합’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분열 후 약 10년 만이다.

통합교단의 대표총회장이 될 이영훈 목사는 “남북이 하나였던 것 같이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며 “이제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 됨을 이루어 한국교회의 통합과 통일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고 했다.



©pixabay

“트랜스젠더와 라커룸 같이 못 써” 미국 학생들, 대법원에 항소

“신체적 사생활, 성적체성으로 인해 침해대선 안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학교의 10대 학생들이 대법원에 학교의 트랜스젠더 욕실 및 라커룸 정책을 바꾸고 '신체적인 사생활'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에 속한 학생들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이아웃을 에어리어 학군을 지지하는 제3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했다. 이 학군에서는 지난 2016-2017학년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즉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성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같은 교육구의 정책 변화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6년(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지된) 전국 공립학교에 보낸 안내 책자에 따른 것이었다. 이 안내 책자에는 자신의 성적체성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소년 이 여자화장실을 비롯해 여성용 라커룸, 샤워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DF에 따르면 보이아웃 에어리어 학군 당국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같은 라커룸에 있던 다른 성별의 학생이 탈의하자 비로소 정책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 6월,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3순회 항소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가 매우 사려 깊고 신중하게 조정된 정책을 채택해 모두

가 배우고 변명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학생들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 학교 당국자들에게 갖지 만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주문 뿐이었다”면서 “일부 학생들은 옷을 갈아입지 못해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결국 학교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ADF는 “탈의실, 화장실 및 샤워실에서 남자와 여자 학생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했기 때문에 제3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순회 항소법원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은 사실 여성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했다”면서 “10대들에게 다른 이성과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DF 수석 변호사인 존 버쉬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가 남자와 여자 학생들을 샤워실, 화장실 및 탈의실에서 분리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신체적인 프라이버시를 인정받자 하는 학생의 권리가 다른 학생의 성적체성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이아웃 에어리어 학군 측 변호인 마이클 레빈은 현지언론인 모닝콜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타당했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대법원에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소위 “사탄 밴드” 공연 소식에 미국 기독교인들 기도



고스트 밴드. ©고스트 트위터

스웨덴 메탈그룹 '고스트'(Ghost)가 오는 11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미들랜드의 한 도시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들리자 교회 관계자들이 기도를 시작했다.

20일 처치리더스닷컴에 따르면, 펠로우십커뮤니티교회(Fellowship Community Church)의 래리 롱(Larry Long) 목사는 CBS 7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밴드나 콘서트를 반대하며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활동을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스트의 보컬은 토비아스 포지(Tobias Forge)가 맡고 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악한 교황의 모습으로 등장해 루시퍼를 찬양하고, 좀비 여왕들, 초능력을 지닌 여학생들을 떠올리는 노래를 부른다. 또 실제로 처녀의 피로 목욕을 했다는 헝가리 백작부인을 노래한다. 토비아스 포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들 중에는 그가 어

릴 때 경험했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인상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른들로부터 얻었던 부정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처치리더스닷컴은 “고스트 멤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또 숨김없이 사탄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롱 목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악마가 실재한다고 믿는다. 고스트의 노래 중 하나는 실제로 악마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을 묘사한 것도 있다. 이러한 노래가 젊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이러한 가사로 노래를 하다가 실제로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겠는가? 고스트 밴드의 가치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많은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연장이 밴드의 공연을 허락해 준 데 대해 놀랐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shalom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트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내놓고 오방이외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문헌말씀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최종주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대(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옥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pm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삼라 만민을 구제. ALL IN JESUS 복수제 2로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행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강의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목)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기독교인들이 지닌 천국에 대한 오해 3가지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 최근 설교에서 관련 내용 전해

라이프타임교회(Life.Church) 크레이그 그로셀(Craig Groeschel)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천국에 대해 갖고 있는 3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후의 삶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2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로셀 목사는 '천국의 영광'이라는 설교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첫번째 오해는 '천국은 지루한 곳'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믿는 한 가지 이유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은 지루함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길 원한다. 천국은 모든 악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다. 이를 생각할 때,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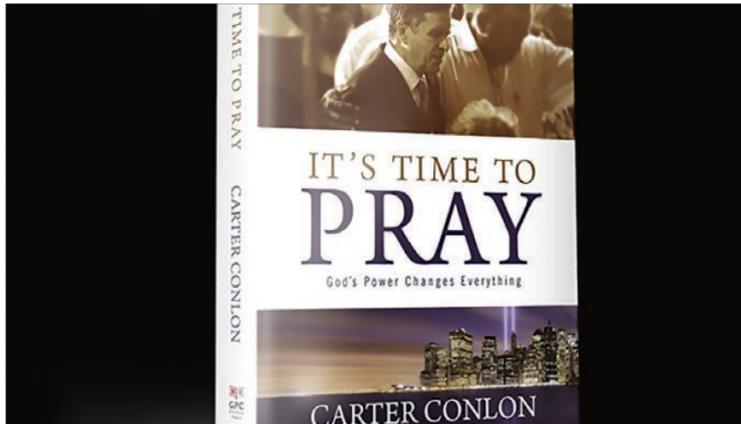
그로셀 목사는 "성경에는 천국에 더 이상의 사망, 고통, 슬픔, 아픔, 공포, 스트레스, 우울, 불면증, 불안, 학대, 마음의 고통, 이혼, 인종차, 불의, 폭력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보다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곳은 아무도 알지못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로셀 목사가 말한 천국에 대한 두번째 오해는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험작하여서 찾는 이들이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들도 많다'고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 오직 용서받은 사람들만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인류의 죄를 인식할 수 있다. 모든 이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의 실재를 깨닫고 영적인 긴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죽은 이후에 대해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카터 콜론 목사 "무신론의 세례가 미국 분열시켜"



©http://ItsTimeToPrayBook.com

미국 뉴욕에 위치한 메가처치인 타임스퀘어(Times Square) 교회의 카터 콜론(Carter Conlon) 목사가 "무신론의 세례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공장소에서 내몰리면서 마약 사용, 폭력과 절망이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미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1백여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타임스퀘어 교회의 목회자인 콜론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자로 전세계에 수십만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그는 최근 신간 'It's Time To Pray: God's Power Changes Everything'(기도 할 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를 발표했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기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 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분열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이 나라의 창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헌법과 국가의 법률 대부분은 유대-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종종 분열의 시기에 직

면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무신론의 세례'를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끝나지 않는 분열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미국이 하나님 아래 속해 있는 나라임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신론의 세례가 모든 학교를 비롯해 정부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공공의 여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물어내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마약 중독은 중대한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는 무례하다. 우리 사회는 인종과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거절한 국가가 항상 가는 길"이라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두려운 순간임을 열면 두려운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기쁨 추구에 대해서만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살지는 않는다"면서 "기독교인 생활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앤엘’ 감사 vs ‘라자’ 감사

아랍어권 선교사로부터 들은 얘 기입니다. 아랍어로 ‘소망’를 뜻하 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앤엘’ 이라는 단어는 항상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고 비교하는 소망입니다. “이 번 주일, 같이 예배드려요.” “네, 그 러기를 ‘앤엘’합니다.” 여기서 소망 은 그러기를 바라지만, 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대신 다른 곳에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네, 그러기를 ‘라자’합 니다.” 대답했다면 어떤 상황이 와 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뜻 입니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감사절이 되면 기억되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 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 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 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 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 리로다”(합 3:17-18)

이 고백은 방금 배운 아랍어 단어 로 말한다면, ‘라자’의 소망을 가졌

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가장 큰 소망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 해 기뻐한다는 신앙적 선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 상황 속에 나오는 계산적 감사일 때가 많습니 다. 예를 들면 이런 감사입니다. “올 해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좋은데, 우 리 회사는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 다.” “뉴스를 보면 말썽 피우며 경찰 에 잡혀 가는 십대들을 보는데, 우 리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크고 있다.” “내 나이에 아직도 골프 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 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 사가 경제난에 망하거나, 우리 자녀

들이 음주운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건강이 나빠져서 골 프는 커녕 걷기도 힘든 상황이 되 면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라자’의 소망으로 불도져처럼 감사할 수 없는 어둠의 상황을 밀어 버리고, 감사와 찬양의 빛으로 뚫고 나오는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과거 항해하던 배가 풍랑 중에 방 향을 잃고 표류되었을 때, 다시 북 극성을 바라보고 노를 젓기 시작합 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을 잃어 버렸어도 다시 방향을 잡고 젓 먹 는 힘까지 발휘해서 노를 젓는 것입 니다. 우리에게도 북극성 같은 소망 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 음과 부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 며... 기뻐하리로다’의 고백의 절대 적 ‘라자’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약속입니 다. 상황에 패배하지 말고, 북극성 같이 변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 사합니다.

벽돌을 놓는 사람

펜실베이니아주에 존이라고 하는 13세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 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았 지만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랬기에 언제나 밝고 진취적이었습니다. 하 루는 교회를 오는데 비가 몹시 내려 서 교회 앞 길이 진흙으로 질퍽거렸 습니다. 자연히 교회당 바닥도 진흙 으로 더럽혀져 보기가 흉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겪는 문제였지만 누 구 하나 나서서 자가 없었습니다.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그때 존은 자신이 교회 앞 길에 벽돌을 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 시 그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 7 센트였는데, 그것으로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사서 깔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2년은 걸려야 교 회 앞 길을 전부 벽돌로 까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어린 존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헌금을 하

는 바람에 교회 앞 길 뿐 아니라, 아 예 교회당 자체를 벽돌로 다시 짓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 가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 길을 보며 문제 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누구 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벽돌을 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잘못을 지적 하고, 그럴듯한 말을 늘어 놓는 사 람들은 많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객관적 입장에서 관찰하 고, 성급한 판단이나 정죄를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 들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 없이 앞 길에 벽돌을 놓아주는 사람 들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군도 이런 사람 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며 조용히 섬김의 손길 을 펴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지체 들을 찾아가 조용히 손 잡아 줄 사 람, 무엇보다 제단 한 모퉁이에 조 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 합니다. 그때, 온 공동체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 길을 닦는 삶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샬롬!

가장 중요한 교육요소는 교사다

십인십색(十人十色)인 학생들에 게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고, 학습자가 갖춰야 할 자세와 태 도, 의지와 목표를 가르치며 배움을 촉진하는 것은 교재와 시설이 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오직 각 사람 의 사정과 상황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즉 교사만 감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만든 교재와 시설이 라고 해도 제대로 된 교사 한 명에 견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이 같은 교사의 중요성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마가는 회당에서 모세 의 율법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 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 어가 가르치시매 못사람이 그의 교 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막 1:21-22).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 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회 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회당의 책 임을 맡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랍비 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청 한 것 같다. 이 장면에서 마가는 선 생님(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대신 우선 그 가르침을 들은 학생들(유대 인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학 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압도당 했다.’ “흠, 이 선생님 실력 있는데?” 정도가 아니라 “와! 어떻게 이럴 수 가?”라고 입이 썩 벌어져서 것이다. 마 가는 이것이 가르친 장소나 내용, 교 재 때문이 아니라 가르친 사람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어느 누구도 필적 할 수 없는 권위로 가르침을 베풀 ‘교사’ 예수님 말이다.

물론 서기관들에게도 율법을 가

르칠 권위가 있었다. 그 권위는 모 세와 당시 명망 있는 랍비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처럼 가르치지 않으셨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 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 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 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 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 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 리라(마 5:21-22).”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 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누가 이 런 식으로 말하더라”가 아니라 “이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제 삼자에게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 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분과의 율 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권 위로 가르치신 것이다.

서기관들도 안식일에 가르쳤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서 기관들도 회당에서 가르쳤고 예수 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서기관

들도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율 법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도 가버 나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 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 다. 때와 상황과 환경과 교재와 학 생이 동일했다. 그런데도 서기관이 가르칠 때는 아무도 입을 벌리지 않 았다.

“그러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 나님의 아들이자 진리 자체이신 예 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 람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라 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 다. 그 말이 당연히 맞다. 하지만 지 금 내가 나누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 가르친 사람이 예수님이라 는 이유 때문에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 는가? 그렇지 않다. 서로 결과가 다 른 것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 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마 23장). 서기관들은 전통과 전 승을 업고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 고 경건한 척만했을 뿐, 하나님과 율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 그러 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 일 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만 하면, 누구라도 예수님과 같은 권위 를 갖고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다(요 14:12). 서기관들이 교사로서 실 패한 것은 그들이 신적 존재가 아니 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 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 을 갖추지 못한 탓이었다.

잘 가르치려면 시설도 중요하고 교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 는 사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 물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 은 바로 가르치는 자, 즉 교사다.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림,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일보, FHM미션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캐나다광림교회(밴쿠버)에서 담임목사 청빙

자격요건

1. 감리교단에서 인정한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 (M Div.) 졸업
2. 이민 목회 또는 해외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3. 감리교 소속 정회원 5년급 이상
4. 연령 만 55세 미만
5. 교회법, 사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 | | |
|-----------------|------------------------------------|
|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 5. 소속교단 재직증명 |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6. 목사안수증 |
| 3. 목회 비전과 신앙간증서 | 7. 추천서(목회자) 2개 |
|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2편 (동영상파일 or 음성파일) |

제출처

서류 제출처:
15678 106A Ave Surrey, BC, V4N 1K4 청빙위원회 앞
Email: kmcsarang@gmail.com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Email: kmcsarang@gmail.com
Phone: 604-951-1414 / 604-813-5724

동부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캘리포니아 LA 동부에 위치한 동부사랑의교회(East Sarang Community Church)에서는 2대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PCA)에 소속된 교회로 2007년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세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 졸업분 (M.Div)
2. 미국 장로교(PCA)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3. 5년 이상 full time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미국 또는 한국)
4. 미국 체류 신분예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증명서
4. 목회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5. 자기 소개서(성장배경, 신앙간증, 소망,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6. 1년 이내의 설교 2편(DVD와 동영상 링크 주소)
7. 3인의 목사 추천서(추천인이 빠진과 함께 escpc2@gmail.com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

2018년 12월 2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제출 방법

- 1.우편 제출처
동부사랑의교회 청빙위원회 / ESCC Pulpit Committee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 2.이 메일 제출처 (escpc2@gmail.com / 이 메일로 보낼 시 PDF 파일로 작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전화: 909-590-3722(ESCC) web: www.eastsarang.org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TOP MEDIA www.TopmediaUSA.com
 SIGN & PRINTING 323.265.0244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우릴 위해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고자 성탄 노래 만들어”

[인터뷰] 정성원 목사, 일천번제의 시작과 크리스마스 앨범



정성원 목사. ©일천번제 제공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정성원 목사의 크리스마스 앨범 작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정 목사는 첫 앨범을 내고 몇 년 사이 700여 곡을 내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데뷔때부터 매년 성탄 찬양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 찬양을 발매한 정 목사를 최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일천번제’ 라는 이름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목사 안수 받고 약 5년 동안 백수로 살고, 2년여 기간 동안 1,500곡 정도를 만들었어요. 곡들을 잘 엮고 빚어서 내는 게 일천번제 작업이에요. 일천번제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잖아요. 곡 하나하나가 일천번제예요.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진 자라 천 마리의 제사를 드렸지만 한 곡이든 두 곡이든 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인 거죠. 사실 처음엔 일천번제라는 이름을 쓰기 싫었어요. 교회에 헌금을 드리라고 강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오용하고 있고, 그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깐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일천번제라는 이름이 음악의 폭을 넓혀줄 수 있던 거 같아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산본중앙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 교육목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수요필위십 담당을 했는데, 교회 두 곳에서 사역한다는 게 버겁잖아요. 교육 파트에도 많은 성의를 쏟아야 되니 최근 수요필위십은 그만두게 됐어요. 앨범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다른 노래가 나왔으니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SNS나 유튜브 관련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불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작은 콘서트부터 해서 많이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매년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고 계신데요.

“만든 건 한 10년 전인데요. 교회 내에서 성탄절 특송을 준비하는데 할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예물’이 나왔어요. 청년부 음악감독, 지휘자로 있을 때 찬양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계속 앨범을 내라고 했어요. 무식하고 용감하게 성탄 앨범을 냈죠.”

당시 앨범의 기획과 구성에 대해 소개해주시다면.

“당시만 해도 앨범 등록을 하면서 타이틀을 지정하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제일 맨 위에 있는 어린이 찬양이 타이틀이 됐어요. 저의 무지함으로 서곡이 타이틀 곡이 됐죠. 실질적 타이틀은 ‘선물’과 특별한 의미를 담은 ‘호산나! 만왕의 왕 찬양 with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선물’이란 곡은 ‘성탄예물’ 앨범의 가장 주제가 된 곡이에요. 캐롤 분위지만 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가 부른 ‘호산나! 만왕의 왕 찬양 with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성탄 가사가 아니고 종려주일 가사죠. 요즘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에만 관점을 갖고 약간 겨울 축제처럼 포장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종려주일의 색채가 더 크잖아요. 심자가 앞둔 본격적인 3일이 중요하다고 봤죠. 성탄절과 부활절이 연결된다고 생각했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결부시키려 했어요. 사실 그게 타이틀곡이었죠.

이제 크리스마스때마다 불러지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좀 무모하게 했죠. 6개월 사이 3장의 정규앨범을 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하긴 그때 안했으면 언제 냈을까 생각도 하지만요. 그 뒤로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곡들을 매년 내고 있어요. 2014년도엔 가수 ‘바이브’의 류재현, ‘하수상’의 이기현과 ‘수퍼스타’라는 곡을 냈고, 2015년도에는 ‘Christmas Is Here’를, 2016년도엔 ‘Christmas Step’을, 2017년도엔 ‘노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냈죠.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곡은 매년 낼 생각이예요. 올해는 ‘Party’라는 곡으로 디아코니아 신인 가스펠 그룹을 세웠어요.”

디아코니아 그룹에 대한 소개를 덧붙여주시다면.

“동아방송예대의 보컬, 여자 셋남자 둘로 이루어진 혼성 5인조 가스펠 그룹이에요. 싱어송라이터하

는 친구들이죠. 예전에 소개받았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 할지 몰랐어요. 언제 한 번 제가 피아노를 쳐준 적이 있었는데, 최동원 친구가 너무 잘해서 기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리더였는데, 믿고 맡긴 거죠. 녹음하는 걸 보다 울었어요. 감동 받은 게 뭐냐면, 요새 젊은 이들이 보통 대중음악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실력, 기량이 미달된 이들이 많은데, 노래를 잘하면서 또 열심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서운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신학교를 가기로 한 때였죠. 7살때 뇌성마비 환자였다가 나왔는데, 어릴 땐 기적적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스무 살 무렵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은 마음으로 깨닫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목사가 될 줄 몰랐다’ 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전 원래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2년 배우고 교회 반주하면서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배우다 대학에 가선 오르간을 공부했죠. 그러다 합창 지휘를 알게 되고 지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클래식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마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게 음악은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거였어요. 음악 목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12년째인데 목회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게 된 건 언젠가요?

“사실 이제야 성숙해지는 거 같아요. 요즘은 특히 10대 아이들을 통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모르고 술, 담배와 친하고 마음이 외로운, 교회하고 전혀 친하지 않을 거 같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 바뀌어 가는 걸 보며 제가 성숙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서 너무 좋아요. 요새 말로 ‘인싸’라고 ‘아웃사이드’의 반대

말인데요, 아이들이 ‘저하고 친해져야 인싸 취급을 받는다’고 반 장난삼아 얘기를 해요. 최근엔 운동하는 친구가 저를 뒤에서 껴안았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혹시라도 뼈가 부러졌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뼈 멀쩡하세요. 근육이 좀 찢어졌네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42세에 10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냥 통로예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를 통로로 하셔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제 음반 얘기를 안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한 친구는 뜬금없이 ‘제 노래를 무한 반복해서 듣다’고,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음악 작업으로도 할 게 정말 많고 더 노력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을 보면 이미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다음세대들의 복음화율이 정말 심각한데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적입니다.

“청소년 사역은 하면 할수록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유아 유치부 찬양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찬양이 나오면 계속 따라 하고, 이게 신앙을 갖는 토대가 돼요. 그렇지만 초등학교생은 아무리 영특해도 어린이에요. 한편 청년의 경우는 이미 굳어진 것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황금기는 사춘기, 뒤집어지는 때는 중고등 학생 시기예요. 그런데 시기가 너무 짧아요. 황금기가 한 3~4년. 19살만 되도 어른처럼 돼요. 그렇기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달려들어야 하는 분야,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한국교회가 중고등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너무 어린아이는 아직 아이고, 어른은 잘 변하지 않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가 아무리 영악하다 해도 진리를 보여주고 진심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로 인해 가정까지 변해요. 흘러드는 거 같아도 들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중고등부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가, 2년 사이 50명 이상의 새로운 아이들이 오게 됐어요. 교회를 처음 오는 아이들이 반 이상이었죠. 이를 보면 절대 한국교회 침체가 아니에요. 분명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실 것이라 확신을 느낍니다.” 김신의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겨울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등록마감일 년 월 일
등록상담전화

겨울학기일정

년 월 일 토	년 월 일 토
매주 토요일	과목 학점이 개설됩니다
교시 오전 시	교시 오전 시
점심식사 오후 시	점심식사 오후 시
채플 오후 시	채플 오후 시
교시 오후 시	교시 오후 시
교시 오후 시	교시 오후 시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학사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THEOLOGY 신학박사
DOCTOR OF MISSIONARY 선교학박사
PH.D. CHRISTIAN COUNSELING 기독상담학철학박사
PH.D.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육학박사

“저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 아닌 철저히 버리셔야”

100주년기념교회 퇴임, ‘거침없이(행 28:30-31)’ 전한 마지막 설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거침없이 버리셨듯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

“경남 거창군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은 마을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시작할 것”

추수감사주일인 11월 18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100주년기념교회 사역을 마무리한 이재철 목사는 사도행전 끝부분인 ‘거침없이(행 28:30-31)’라는 제목의 마지막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된다”고 말했다.

이재철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거침없이 버리신 것은 죽음을 깨뜨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었다”며 “주님께서 인간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거침없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만민을 살리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는 못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목사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다. 오늘을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내일을 얻을 수 있다. 낡은 부대를 거침없이 버려야,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를 지닐 수 있다”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임 공동 담임목사님들을 통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교우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재철을 버리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13년 4개월 전에 100주년기념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100주

년기념교회 담임목사가 된 것이 아니다”며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마르투스(종)와 휘페르테스(증인)의 사명을 다한 뒤 떠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가 됐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은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리셔야 한다”며 “이재철을 크게 버리면 크게 버릴수록, 후임 공동담임목사님들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목사는 “오늘 4부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100주년기념교회의 공식 담임목사는 후임 4인 공동 담임목사이시다. 훌륭한 네 분의 목사님들을 100주년기념교회 2대 공동 담임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다”며 “그 네 분의 영성과 역량이 한데 어우러지면, 저 같은 사람은 그분들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 속에서, 온 교우님들과 후임 공동 담임목사님들, 그리고 온 교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사도행전 29장, 각자의 사도행전 29장과 100주년기념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지금부터 엮어가지”고 당부했다.

또 “그 사도행전 29장을 통해, 하

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시대의 미래를 지구 반대편의 미래까지 날마다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롭게 심어주실 것임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가”라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로 설교를 맺었다.

이재철 목사는 설교에서 퇴임 후 계획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제가 내일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궁금해 하신다”며 “13년 4개월 전 제가 살던 집 옆에 100주년기념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세워졌더라도 저와 무관한 교회였다면, 저는 당시 이미 20년째 살고 있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양화진에서 계속 살면서 양화진에서 제 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제가 양화진에 세워진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가 된 이상, 퇴임 후 제 여생을 양화진에서 보낼 수는 없게 됐다”며 “퇴임 후에도 제가 양화진을 떠나지 않는다면, 제 후임자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교회 창립 직후부터 저희 부부는 퇴임 후 여생을 시골에서 지내기로 하고, 한반도 어느 곳이든 평당 10만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을 생애 마지막 정착지로 삼기로 했다”며 “평당 10만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그 정도 가격이라야 저희 부부의 형편에 맞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재철 목사는 “하지만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마을 속 평당 10만원짜리 땅은,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는 한반도 땅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다. 반



이재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드시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땅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정작 매입하려 하자 가격이 치솟았다. 그런 땅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택정해 놓으신 곳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목사는 “암 수술을 받고 투병할 때였던 2013년, 교회에 출석하다 경남 거창으로 이사한 교우님이 제 아내에게 연락했다. 거창군 웅양면 산중턱 마을에 평당 10만원짜리 땅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그 땅 주인은 서울 사람이 땅을 매입하려는 것을 알고도, 땅값을 올리지 않았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택정해 놓으신 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부부는 돈을 모으

고, 아이들이 그곳 땅을 매입해 주었다. 그리고 작년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건설업체를 잘못 만나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가 떼이는 곤욕을 치르며 겨우 완공되어 이사까지 모두 마쳤다”며 “처음에는 15평 컨테이너 두 동을 붙여 지으려 했는데, 한 교우님이 재능기부로 설계해 주셔서 애초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집이 되었다. 오늘 4부 예배가 끝나는 대로 저는 그 집으로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저희 부부는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택정해 주신 그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100주년기념교회, 초유의 4인 공동 담임목사 체제로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가 정년 7개월 남겨둔 18일 은퇴했다. 이목사는 정애주 사모와 함께 청년 4부예배 설교 후 1천여 교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교회를 떠났다.

이재철 목사는 경남 거창군 웅양면으로 이사를 완료했으며, 은퇴와 관련한 아무런 예식도 치르지 않았다. 국내 적지 않은 대형교회가 세습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철 목사가 지난 13년 4개월간 초대 담임으로 재임한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교회 초유의 ‘팀 목회’인 4인 공동 담임목회 실험에 나선다.

정한조 목사는 영성 총괄로 주로 설교와 교육을 맡고, 김광욱 목사는 목회 총괄, 이영란 목사는 교회학교 총괄, 김영준 목사는 대외 총괄 등

각자 맡은 분야를 책임지면서 공동으로 담임목회를 시작하게 된다.

이목사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다. 교회 측은 이목사 내외를 위해 내외와 가디건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퇴임 후 ‘공동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후임목사 중 1인인 정한조 목사는 지난 7월 8일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 설교 ‘군계 결심하시고(눅 9:51-62)’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정목사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나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영광, 즉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신도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며 “우리 교회가 공동담임목회를 시작한 이유는, 더 많은 분야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담임목사 한 사람에게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공동담임목사들도 소명인으로서 십자가를 짐으로 고유한 역할과 공동의 역할을 담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섬기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둘째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님들이 맡가지가 됨으로써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맡가지가 아니라 맡가지의 삶이었다. 그러나 맡가지가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길이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나무의 맡가지는 잎가지보다 튼튼해야 잘 버틸 수

있다. 아무리 맡가지의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을 살 수 없다”며 “그래서 맡가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정서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생활 가운데 내가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맡가지로 있는 것이고,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면 잎가지로 있고 싶은 것이다. 튼튼한 맡가지 위에서 잎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며 “내 신앙생활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내 맡가지의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당부했다.

셋째는 “정관을 따라 교회를 꾸

려가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정관 항목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관이 존중되는 한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며 “주님께서 13년 전 양화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심어주심은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계승하게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길 닦기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오늘을 출발점으로 삼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하심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셨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진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9301, Fax: (323)643-9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야구 경기보다 더 재미있는 예배를 드리는 목사 정릉 벨엘교회 박태남 목사

‘活命水활명수 교회가 되자!’, ‘수면제 설교’, ‘계산은 식당에서나 먼저 하십시오’, ‘이거 실화입니까? 하나님!’, ‘현장조사 보고서’, ‘대놓고 예수’, ‘오답노트’……

이 제목들은 방송국 콘티도, 방송 프로그램 제목도 아니다. 벨엘교회 웹사이트(funchurch.net)에서 발견한 설교 제목과 주제들이다. 대중매체에서 흔히 본 표현들이나 설교 제목으로는 처음이었다. 심지어 교회 웹사이트 주소도 심상치 않다.

설교는 어떻게? 설교 영상 하나를 재생해 보았다. 설교자 중 갑자기 강단 위로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설교자를 부른다. “박 목사”, 그가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오셨어요. 마침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러던 참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나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예배였다.

21일부터 24일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린 ‘제2회 미주 목회자·선교자 자녀 컨퍼런스’ 참석차 LA를 방문한 박태남 목사(정릉 벨엘교회)를 인터뷰를 하러 가는 길, 평범한 인터뷰가 되지 않을 거란 직감과 함께 기자가 지닌 평범한 질문들이 그 독특한 표현들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신앙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섰다. 사랑의빛선교교회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거침없는 답변으로 그런 우려를 모두 불식했다.

신앙의 여정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저도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아버지 목회자가 어려워지면서 방황하는 시기를 밟다가 미국에 도교성 유학을 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지만 내 나름대로의 삶을 찾고 싶었다. 매형이 사우스 엘에이에서 철공소를 했는데 거기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시엔다 연합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랜초쿠카몽가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가 교역하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30년 목회하신 교회였다. 요즘 목회자 세습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싶은 교회였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이 쓰러지고 그 일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감도 느꼈고 내 모교회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사역을 시작하고 3

년 동안은 눈물로 목회했다.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미국 유학 시절 미주복음방송(GBC)에서 ‘찬양의 심포니’, ‘성경 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4년 반 정도 진행하고 기획, 제작했고 동부쪽에서 찬양팀도 진행하고 청소년 목회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때 ‘이제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지’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가서 깨달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처음 3년 동안 하나님이 나 자신을 많이 보게 하시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26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목사이다.

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교회 모토는 “FUNchurch”이다. F(Fortified Faith) U(Unlimited Love) N(Neverending Hope) 즉, 흔들림 없는 믿음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이다.

한국에서 목회사역과 함께 ‘온갓네트워크(On God Network)’를 통해 여러 기독교 단체를 네트워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 해왔는데 네트워크가 안됐다. 그 결과, 교회들이 똑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사역이 중복된다. 이들을 연결시키면 각자 자기 교회의 특징과 목회자의 특성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제가 하는 사역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안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외부적으로는 진근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FUNchurch’도 그렇고 ‘온갓네트워크’도 내적으로는 ‘On God’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온갓’ 즉 여러 교회의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를 지닌다. 저는 실물 설교(object sermon)를 많이 하는데 주로 문화적인 콘텐츠를 활용한다.

예배 때 새롭고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습니까?

팀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매주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관해서 5명의 목사들이 함께 논의한다. 제가 말씀의 뼈대를 만들면, 그 분들이 논의에서 나온 것들을 갖고 유스 그룹, 청년 그룹, 장년 그룹 등 각 그룹에 맞게, 같은 주제로 다른 설교를 한다.

중요한 것은 목표다. 그것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지향하고 있는가’이다.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사교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복음적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며 항상 팀을 이뤄 사역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종교는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종교의 주된 가르침이고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가르쳐 온 면이 있다. 그러나 관계가 핵심 열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회 스태프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끝자리에 서는 교회’다. 다섯 명의 목사가 모여서 누가복음 14장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으라” 하신 말씀처럼, “맨 끝자리에 앉자”고 얘기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유가 이야기 하는 바는, 교회와 크리스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자리를 정해주시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 돌아갈 때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언하셨다. 하지만 내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존경받는 목사보다는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예배 자체를 현장화하려 한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문화들을 메시지 안에 담는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은 교회에서 쓰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교회가 이원론에 젖어 있다고 느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삶속에서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느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예배의 삶을 살다가 내 자신을 복음의 은혜로 충진하고 회복하는 현장이다.

바이블벙에 있는 교회 12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봤다. 구령에 대한 열정, 삶과 신앙을 일치하려는 노력. 그러나 당시에 한국교회에는 있지만 그곳에는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다. 기도가 부족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느꼈다. 그 두개가 합쳐진 교회가 요즘 눈에 많이 띄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답을 찾아가게 만드신다. 이번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예배에 속지 말라’는 내용이



박태남 목사와 김정애 사모.

있다. 많은 사람이 예배만 잘 드리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포도나무의 비유(요15)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내 안에 거하라’고만 하셨다. 그게 영성이다. 모든 교회들이 선교,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 가정, 사회 등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를 하는 것, 선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다른 게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다른 종교적 행위들 보다 앞서야 하는 게 말씀과 기도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를 살리실 때 내 말씀을 대언해 내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라고 하신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저를 거의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인 듯 행동했다.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역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은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미뤄둔다.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찬양을 통해 은혜를 회복하기도 한다. 운전하던 중 ‘주의 옷자락 만지머’라는 찬양을 듣다 옛날 미국에서 사역하던 일이 떠올라 아내와 함께 눈물을 닦으며 운전했다.

신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 교회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살아내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신학생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려고 하지 예수를 살아 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신앙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목회하시면서 감동적인 기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간 순간이 감동이라……목회자 자녀인데 야구경기를 좋아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형제가 있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다음 ‘야구 경기보다 더 재미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 처음 알게 됐다’며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됐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묵상을 생활화 하라’는 것이다. 목회자 자녀들은 말씀과 교회라는 환경에 익숙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외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행복이다. 주디 한 기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이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